

보도자료

2010년 4월 1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 과장(☎750-2330)

“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공동사업 협약 체결”

- 방통위, KBS, LH, SH공사, KICA,
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2012년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누구나가 디지털TV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(이하 KBS),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, 에스에이치공사(이하 SH공사),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(이하 KICA)와 공동으로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.

이를 위해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, 김인규 KBS 사장, 이지송 LH 사장, 유민근 SH공사 사장, 김일수 KICA 회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「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공동사업 협약」을 체결하였다.

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공동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안테나 및 헤드앤드 장비 교체 등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구축이 어려운 농어촌마을 및 공공임대주택의 아날로그TV공시청설비를 디지털설비로 개선하여 시청자가 디지털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우선,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공동으로 올해 전국 158개소(2012년까지 총 506개소)의 농어촌 마을공시청설비를 디지털설비로 개선할 예정이다.

< 마을공시청설비 현황 및 개선 계획 >

단위 : 개소

	합 계	수도권	강원	충남	충북	경남	경북	전남	전북	제주
현 황	506	53	65	23	56	78	33	99	96	3
'10년 계획	158	13	32	8	12	7	26	35	22	3

또한, LH 및 SH공사와 협조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공시청설비도 올해 62개 단지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9개 단지의 공시청설비를 디지털설비로 개선할 계획이다.

한편,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범사업 지역(울진, 단양, 강진)을 포함, 자연적·인위적 난시청지역 10곳에 소출력 동일채널중계기를 구축·시범운영하여 난시청 해소 효과 분석 및 상용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소출력 동일채널중계기 : 방송보조국 구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도심의 인위적 난시청 지역 및 도서벽지 등 소규모 지역(반경 1km내외)을 커버하기 위한 입·출력 채널이 동일한 소출력(1MHz당 10mW)의 중계기